

- 주요 뉴스: 미국 경제, 고물가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 불확실성 신호들을 발신
 - 미국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급격한 금리변화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독일 경제장관, 노드스트림1 수리 이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 존재
 - 중국 6월 신규대출, 전월 대비 증가. 당국의 경기부양책 강화 등이 원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2/4분기 기업실적 발표 앞두고 경기불안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2%], 달러화 강세[+1.1%], 금리 하락[-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대형기술주 중심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약세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1.4%, 1.0%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반영
독일은 역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10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10.7원, +6.8원) 0.5% 상승, 한국 CDS 상승

		7/11일	7/8일	전일대비			7/11일	7/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54.4	3,899.4	-1.15%	국채 금리 10y	미국	2.99%	3.08%	-9bp
	유럽	415.02	417.12	-0.50%		독일	1.25%	1.35%	-10bp
	중국	3,313.6	3,356.1	-1.27%	CDS 5y	한국	53bp	52bp	1bp
	일본	26,812	26,517	1.11%		중국	82bp	80bp	2bp
	한국	2,340.3	2,350.6	-0.44%	위험 지표	EMBI+	-	457	-
환율	달러지수	108.23	107.01	1.14%		VIX	26.17	24.64	6.21%
	유로화	1.0040	1.0185	-1.42%		WTI유	104.09	104.79	-0.67%
	엔화	137.44	136.10	-0.97%	원자재	구리	343.8	353.2	-2.68%
	위안화	6.7190	6.6946	-0.36%		금	1,734.0	1,742.5	-0.49%
	원화	1,303.9	1,300.4	-0.2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경제, 고물가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 불확실성 신호들을 발신

- 지난 주 6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나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신호들도 존재. 뉴욕 연은 조사에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6.8%를 나타내 조사가 시작된 '13년 이후 최고치 기록. 이는 강력한 통화긴축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 다만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3.9%→3.6%)
- Barclays에 따르면, 6월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 같은 달 소매매출 역시 감소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일부에서는 급격한 소비자지출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 소비부문 부진은 향후 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BofA 역시 자체 신용카드 사용 조사에서 6월 휘발유 가격의 사상 최고치 기록 등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다른 부문의 소비를 줄였다고 분석. 이에 실질 소비가 5월에 이어 6월까지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추정
- 경기침체 신호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는 10년물(2.99%, -9bp)과 2년물(3.07%, -3bp)의 수익률 역전 현상도 지속. 또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WTI 가격(배럴당 104.1달러, -0.7%)이 하락
- 아울러 이번 주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2/4분기 기업실적 공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전문가들은 소비심리 둔화 등을 이유로 경계감을 피력. 또한 7/13일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급격한 금리변화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조지 총재는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도 가능한데, 이는 경제 및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금리인상 시작 4개월 만에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것 역시 놀랍다고 첨언
- 반면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블라드 총재는 신속한 금리인상을 지지하며, 단기간 내에 경기침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또한 경제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 역시 7월 0.75%p 금리인상을 지지하며, 경제는 이러한 금리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

■ 독일 중앙은행 총재, 취약국 국채금리 상승 억제를 위한 ECB의 채권매입 필요

- 나겔 총재는 ECB가 과거 무제한 채권매입에 나섰던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와 같은 새로운 자산매입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12년 OMT 계획은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나, 공개만으로 취약국의 국채금리 하락에 일조

■ 블룸버그 설문조사, 유로존 경기침체 위험 증가

-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45%로 이전 조사(30%) 및 러-우 전쟁 이전(20%) 대비 상승

■ 독일 경제장관, 노드스트림1 수리 이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 존재

- 하벡 장관은 러시아가 노드스트림1 수리 기간(7/11일부터 10일간) 이후에도 가스공급을 보류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 그러나 러시아의 크렘린궁 페스코프 대변인은 원유 혹은 가스를 정치적 압력 행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 중국 6월 신규대출, 전월 대비 증가. 당국의 경기부양책 강화 등이 원인

- 지난 달 신규대출은 2.81조위안으로 전월(1.89조위안) 및 예상치(2.40조위안)를 모두 상회. 당국의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가 반영되면서 기업부문 중장기 대출이 늘었고, 주택시장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문 대출도 증가

■ 중국, 여러 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한조치 시행

- 상하이시에서는 새로운 변종 BA5가 발견되어 집단검사에 나설 계획. 한편 허난성 시양시에서는 7/10일부터 7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봉쇄 조치를 단행. 이외에 하이난성과 장시성 몇몇 도시에서도 일부 오락시설 사용을 중단

■ 일본은행 총재, 필요 시 주저하지 않고 추가 완화에 나설 방침

- 구로다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며, 이에 취약한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양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또한 낮은 수준의 장단기 금리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12 현지시각 기준)

-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강연, 독일 7월 ZEW 경기기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정치적 위험 증가, 신흥국과 유사. 장기적으로 경제도 위협** - Financial Times
(Is the US starting to resemble an emerging market?)
 - 정치·경제 조사기관인 GeoQuant의 Mark Rosenberg는 세계 각국의 정치적 위험을 측정. 이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적 위험은 7월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 이를 미국 정치의 신흥국화라고 평가
 - 아직 이러한 정치적 위험의 여파는 크지 않으며, 미국은 여전히 경제와 금융 부문에서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 하지만 경제활동 혹은 기축통화 등은 궁극적으로 신뢰를 요구. 정치적 위험의 확대는 결국 경제에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가치 방어 노력, 실제 효과는 불확실** - WSJ
(Asian Central Banks Fight an Unwinnable Battle Against the Dollar)
 - 미국 달러화 강세가 지속. 이에 아시아 신흥국은 자국 통화의 과도한 약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인도는 외국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본유출 억제에 유도. 태국은 통화가치 폭락 우려에도 금리인상을 최대한 자제
 - 하지만 연준의 확고한 통화긴축 기조 유지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신흥국의 이러한 노력에 따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에 신흥국은 현실적으로 통화가치의 완만한 하락을 최선의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
- **미국의 경기침체, 자기실현적 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 - 블룸버그
(Americans Are Talking Themselves Into a Recession)
- **미국 금융시장, 향후 자산 분석보다 소비·투자 등 신용위험 분석이 중요** - 블룸버그
(Investors Should Think Risk Factors, Not Asset Classes)
- **신흥국 부채 위기, 채무탕감 부재 시 대규모 채무불이행 발생할 우려** - Financial Times
(Emerging markets: inflation, shortages and interest rates cripple economie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